

교회소식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은 그 첫째 주일입니다.
2. 오는 2월 28일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청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입니다. 2부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남성을 위한 주일 상설 성경 읽기반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구 아동부실, 40분).
4. 2021상반기 공동 성경읽기를 3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범위: 구약 사무엘상).
5.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주일입니다(오후 1시 30분, 느헤미야실).
6. 성경 공부를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관계로 한 주 연기합니다.

| 과목 | 개강 | 기간 | 인원 | 담당 |
|-------------|----------------------|-----|-----|--------|
| 기도 |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11주 | 9명 | 이성훈 목사 |
| 신앙의 토대 (화상) | 2월 23일 오후 7시 45분 | 11주 | 9명 | 이태한 목사 |
| 청지기의 삶 | 2월 21일 오후 2시 45분 | 11주 | 10명 | 이태한 목사 |

* 기도 과목은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중 한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 청지기의 삶은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중 두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7. 점심 교제에 떡을 준비하여 여러 성도들을 섬겨주신 김상덕 집사, 박제란 권사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8. 코로나19 Level 변동 발표가 22일(월)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바랍니다.
9. 남태평양 노회 뉴질랜드 시찰회가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 나눔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FEBRUARY

교회사역일지

2월 17일(수)
참회의 수요일
2월 21일(주일)
사순절 1
2월 24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2월 28일(주일)
청년 주일, 제직회

기도순서

2월 28일 (주일)
이정인 집사
3월 3일 (수)
김은희 집사
3월 7일 (주일)
박제용 장로
3월 10일 (수)
김자경 권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정인, 김현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소진,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08호 2021.02.21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 | | |
|----------------------|--------------|-----------|
| 찬양 | | 주일 찬양단 |
| Praise | | |
| 예배로부름 | 호세아 6:1-2 | 인도자 |
| Call to Worship | | |
| ✧ 찬송 | 27장 | 다함께 |
| Hymn | | |
| ✧ 참회의기도 | | 다함께 |
| Prayer of Repentance | |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
| The Apostle's Creed | | |
| 찬송 | 270장 | 다함께 |
| Hymn | | |
| 대표기도 | | 정덕수 장로 |
| Prayer | | |
| 성경봉독 | 창세기 18:22-33 | 인도자 |
| Scripture | | |
| 찬양대찬양 | 나의 생명 되신 주 | 나무십자가 찬양대 |
| Choir | | |
| 설교 |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 | 이태한 목사 |
| Sermon | | |
| 찬송 | 원하고바라고기도합니다 | 다함께 |
| Hymn | | |
| 헌금기도 | | 인도자 |
| Offering | | |
| 교회소식 | | 인도자 |
| Announcements | | |
| ✧ 공동성경읽기 | | 다함께 |
| Closing Scripture | | |
| ✧ 응답송 | 171장 (1절) | 다함께 |
| Closing Hymn | | |
| ✧ 축도 | | 이태한 목사 |
| Benediction | |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되어 1년이라는 시간을 짝 채운 채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과 아픔 속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가 참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 하리로다” (시 121:5-6). 오직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베트남은 일찍 차단하고 격리하여 자국 안에서는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항공 손님들에게 15일 격리가 힘들게 합니다. 고국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매일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7:1-14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 앞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고, 쾌락 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신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현지 교회들과 학교, 인민 위원회와 지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의 현장들을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0년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코로나19 상황에도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2. 전도된 현지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 | | |
|---|---|-------------------|-----------------------|
| 기 | 도 | Prayer | 김영아 집사 |
| 성 | 경 | Scripture | 로마서 15:1-13 |
| 설 | 봉 | Sermon |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
| | 교 | | 이성훈 목사 |
| 찬 | 송 | Hymn |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 주 | 기 | The Lord's Prayer | 다같이 |

나눔란

2021년 2월 14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받은 복 나누어 주는 삶> 창세기 18:16-21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기 쉽지만 어떤 상황, 어떤 실패 앞에서 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 아브라함은 끝까지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았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초라한 나그네를 환대하고 전송까지 했습니다(16).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한자리에 누워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처럼(눅 17:34)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을 주셨지만 롯에게는 전격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은 초라한 나그네를 환대하는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롬 12:13). 예수님께서서는 창녀와 세리를 반겨주신 정서적 환대와 배고픔을 채워주신 육적인 환대, 구원을 주신 영적인 환대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환대입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일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마 10:42).

2)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비밀은 진정한 친구에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17, 사 41:8, 약 2:23).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친구 삼으신 게 아니고 환대 때문입니다.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주님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요 15:15).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요 15:13) 예수님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 끼 식사로 맺은 관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 없어도 친구로 만나 주십니다. 기능적 관계가 아닌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가 아닌 손님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3)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19).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이 의롭고 공의로워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외친 십자가 강도는(눅 23:42) 아무 자격 조건 없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눅 23:43).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요 6:29)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을 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고전 4:1) 하나님의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끝까지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누리며 은혜로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예수님만이 복음이요 소망이고 진리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믿음의 진보를 위해 여러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질병의 고통과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도록.